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8. 11. 30.(금) 총 5매(본문 2, 참고 3)		
담당 부서 어촌어항과		담 당 자 ·과장 김학기, 사무관 서덕훈, 주무관 주래만 ☎ (044) 200-5650, 5651, 5652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해수부, 국가중요어업유산 2건 추가 지정

-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1월 30일(금)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과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고유의 유·무형 어업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제주 해녀어업(2015), 보성 빨배어업(2015), 남해 죽방렴어업(2015), 신안 천일염업(2016),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2017) 등 5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전남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과 경남 하동·전남 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 전국 시·군에서 신청한 어업유산 후보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 지정되면 어업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예산을국가로부터 지원 받음

전남 무안·신안의 갯벌낙지 맨손어업은 남성은 ‘가래 삽*’을 사용하고 여성은 맨손으로 갯벌에 서식하는 낙지를 채취하는 전통어법이다. 특히 전남 무안·신안군의 갯벌은 영양분이 풍부한 썰 갯벌이어서 타 지역에 서식하는 낙지에 비해 유연하고 부드러운 육질을 가진 낙지를 채취할 수 있다.



* 일반 삽보다 작고 끝이 뾰족하여 갯벌을 파기 쉬운 모양으로 제작된 낙지잡이 전용 삽

경남 하동·전남 광양의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거랭이’라고 하는 손틀 도구를 이용하여 재첩을 채취하는 어업방식이다. 섬진강은 국내 재첩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재첩의 주 생산지이며, 경남 하동군과 전남 광양시는 전통 어업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어업유산지정서가 발급되고, 앞으로 3년간 어업유산 복원과 계승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고유의 브랜드 가치 향상뿐만 아니라 어촌주민 소득 증대,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총사업비 7억(국비 70%, 지방비 30%)

김학기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어촌에 계승되는 유·무형 어업 자산들을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국민들에게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 등을 널리 알리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

□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유산 명칭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위 치	무안 탄도 및 신안 선도 일대 갯벌
면 적	총 면적 118.35km ²
개요	낙지의 생태를 파악하여 재빠르게 맨손으로 포획하는 전통 낙지잡이 어법
역사성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 전라도 나주목 무안현의 토산품으로 진상되었고, 『무안읍지』(1895)에 무안의 주요 토산품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흑산도 유배지에서 정약전이 저술한 『자산어보』(1814)에도 낙지의 생태와 특성의 기록이 남아있어 이 지역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낙지를 채취하여 왔음을 확인. 낙지 맨손어업은 최대 500년 이상의 역사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 및 연안지역에서 생계유지 수단으로 이용
	
팔낙지어업	가래 낙지어업
	
문음낙지 방식의 표식	보관도구 '통어리'

□ 하동·광양 재첩잡이 손틀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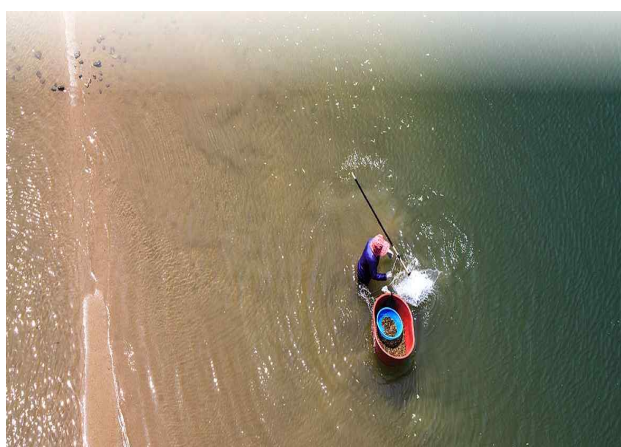
유산 명칭	하동·광양 재첩잡이 손틀어업
위 치	하동군, 광양시 섬진강 하류 일원
면 적	140ha(경남 하동군 75ha, 전남 광양시 65ha)
개요	서식환경이 잘 보존된 기수역에서 거랭이 등의 도구를 사용해서 재첩을 채취하는 어법
역사성	별다른 도구 없이 호미나 손으로 얇은 강물 속을 파서 재첩을 채취하던 방식에서 ‘거랭이’를 이용한 손틀방류 어업으로 발전하였다. 1908년 한국 통감부가 발간한 『한국수산지』 제1집에서 그 당시의 유용수산물 106종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재첩이 포함된 사실로 미루어, 110년 전부터 재첩이 상당히 대중적인 식재료였음을 알 수 있다.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전경



손틀어업 어구(거랭이)












재첩잡이 전경



섬진강 재첩

참고 2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현황

유산명칭	대상 지역	특 징		
제주 해녀어업 (제1호) (15.12.21)	제주도 전역 (14,346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해녀어업은 장치 없이 맨몸으로 잠수해 전복, 소라, 미역 등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전통적 어업방식으로 불턱, 해신당 등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문화적 가치 존재 		
보성 빨배어업 (제2호) (15.12.21)	전남 보성군 별교읍 장암리 일대(35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밟으면 매우 깊게 빠지는 아주 미세한 갯벌 진흙(mud) 특성 때문에 빨배는 꼬막 채취를 위한 유일한 어업활동 이동 수단 		
남해 죽방렴 (제3호) (15.12.21)	경남 남해군 삼동/창선면 지죽해협 일원 (537.2ha, 죽방렴 2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국시대 이래 현재까지 어업인 생계수단으로써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반도 유일의 함정어구를 사용한 어로방식으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대표적인 전통적 어업시스템 		
신안 갯벌 천일염업 (제4호) (16.10.31)	전남 신안군 천일염전 일대 (29.7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 들여 전통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해 바람과 햇볕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전통어업활동시스템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 (제5호) (17.12.1)	전남 완도군 고금면 청용리, 가교리, 봉명리 일대의 지주식 김 양식장 (358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얇은 수심과 큰 조수간만의 차 등 양식 어장의 특성을 이용해 김을 자연 햇볕에 일정시간 노출을 반복하면서 생산하는 친환경 · 전통적 김 양식어업 		